

‘사물의 패러독스’ 관습화된 시각을 뒤집다

송은영 ‘침범하는...’展

실재와 환영의 간극을 탐색해온 작가 송은영(Song Eunyoung)이 소격동 갤러리 선컨템포러리(대표 이명진)에서 4일부터 27일까지 작품전을 갖는다. 전시 부제는 ‘침범하는 Invading’.

송은영은 캔버스를 스크린 삼아 낮은 이미지를 투사한다. 이 이미지는 장소적 시대적 특성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이미지로, 작가는 이를 ‘원본’ 삼아 밑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사물들을 조금씩 비틀거나 겹쳐가며 표현한다. 이처럼 송은영은 착시 현상이라는 고전적인 그림 그리기 방식을 이용해 회화적 관습을 산뜻하게 붕개시킨다. 섬세하면서도 세련되게 그려진 송은영의 그림들은 ‘본다라는 행위와 ‘회화’라는 시각매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습화된 시각 원리의 모순을 관객앞에 드러내는 것.

무심한 듯 낮설게 정지된 송은영의 회화는 관객을 당혹스럽게 한다. 그의 그림은 숨은그림 찾기를 하듯,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 안에서 배회하게 만든다. 과연 ‘실재란 무엇이며, 회화를 통해 사람들은 과연 실재를 볼 수 있는지 질문하게 한다.

이처럼 송은영은 고집스럽게 ‘이미지’를 탐구한다. 그림과 사진을 충돌시키는 매체적 실험을 했던 작가는 움직임과 멈춤을 대비시키며 실존적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도 일련



송은영 작 ‘침범하는 공간’. 실재와 환영을 병치시키며 남다른 상상력을 뽐내낸다.

의 고민과 실험은 여전하다.

프랑스의 소르본 파리1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친 송은영은 귀국 후 거울이라는 독특한 재료를 통해 원근법적 시선을 교란시키며 ‘자아’를 탐색하는 작업을 시도해왔다. 이 같은 작업으로 송은 문화대상(2003년)과 석주미술상(2006년)을 받은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의 눈이 보는 세계와 실재의 세계를 유화 콜라주 기법으로 탐색했다.

그의 작품에선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탁자에 엉뚱하게 안락의자가 겹쳐져 있고, 소파 뒤쪽에 있어야 할 유리창틀이 소

파 위에 침범해 있다. ‘붉은 카펫’이란 작품에선 복도를 걷는 여성의 몸이 반쯤 벽 속에 묻혀 있어 고개를 가웃거리게 하며, ‘화이트 드레스’에선 바닥에 뿌리내려야 할 침대 기둥이 공중에 붕 떠 있다. 또 문 짝과 드레스는 반쯤 맞물리며 기묘한 풍경을 연출한다. 이렇듯 수수께끼 같은 낯선 공간은 꿈과 현실이 공존하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삶에 대한 메타포다. 마치 밤과 낮을 하나의 작품에 공존시킨 르네 마그리트처럼 송은영도 실재와 환영을 한 화면에 병치시키며 남다른 상상력을 뽐내낸다.(02)720-5781

이영란 기자/yrlee@heraldm.com